

또다시 분노한 초불민심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4.16헌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규모적인 초불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가로막는 범죄집단, 부패정당으로 강력히 단죄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산절차와 법을 존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초불민심이 들고 일어나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한국청년리더》, 청년당 등 진보적 청년단체들도 《자유한국당》해산선관 시민헌법제정소》 준비위원회를 내고 국민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시민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심판식을 개최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이곳에서 반 《정부》 규탄집회를 벌여놓으려던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에게 《당장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하면서 물벼락을 안기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여왔다. 한편 《경와대국민청원제시판》에 《자한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자수가 180만여명에 달하였으며 인터넷에는 《다시 초불을 들고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시키자.》, 《국민을 우롱하는 역겨운 친일매국노들, 다음해 총선에서 박멸하자.》 등의 글들이 수없이 오르는 등 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역사의 반동이며 시대의 오물인 《자한당》에 대한 남녘민심의 쌓이고 쌓인 저주와 분노가 폭발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한당》 패거리

들은 그 무슨 《좌파독재지지》, 《헌법수호》를 떠들며 현 《정권》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들을 개최하는가 하면 《국회》앞에서 삭발을 한다. 청와대를 폭파시키버려야 한다고 체재하는 등 남녘민심의 격분을 자아내는 란동을 거리낌없이 벌여놓고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의 이러한 망동이 초불투쟁의 성과와 전취물을 전복하고 보수세력의 재집권과 좌파독재부활을 위한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민생은 아랑곳없이 재집권야망에 환장하여 민생에 역행하는 추악한 망동을 일삼는 역적무리들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과 격분은 이제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박근혜탄핵때 역사의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이 감히 머리를 쳐들고 초불투쟁을 모독하며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날치고있는것이야말로 남녘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박근혜의 《국정》 통탄사건의 공범집단으로서 반성은커녕 사건건건 현 당국의 《국정》 운영발목을 잡은 《자한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분출된것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자한당》이 다음해 《총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평가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좌파독재복귀와 동족대결에 기생해온 반역집단의 추악한 란동에 격분한 남녘민심은 보수적패무리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깨개 쓸어버릴 만만한 투지에 넘쳐있다. 박영일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범죄자를 처벌하라》 서울에서 각계층 준중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4.16련대의 주최로 4일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초불집회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황교안, 라경원 처벌하라》 등의 구호판들과 초불을 든 《세월》호참사피해자 유가족들, 시민들을 비롯하여 2 000여명의 각계층 준중이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막아보려고 광화문광장에서 그 무슨 《친박통성》을 벌려쳐 하고있다고 까뻐왔다. 광화문광장은 《세월》호참사 장본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유가족들이 목숨걸고 단식을 하고 시민들이 눈비를 맞으며 진상규명을 쫓는 곳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수백명이 수장된것과 관련한 기록물을 없애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집단이 광장을 더럽힐수 없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악폐집단을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떳떳하게 살수 있겠는가고 절규하면서 그들은 《민정당》 해체의 합성이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진것은 그동안 국민을 짓밟은 집단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특권층을 보호하려고 유가족을 탄압한 황교안

을 처벌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유가족들이 앞장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초불을 다시 들고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을 몰아냄으로써 사랄다운 사회를 만들어 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기에 광범한 대중이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세월》호참사 좌파독재인수사하라》, 《황교안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숨겨진자가 범인이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자유한국당》 너에게 알날이 없다

광주의 불세례

김영일
다른 하늘에 매나인 비 내리듯 물세례가 퍼부어지네 변색스런 낯짝 쳐들고 광주 땅 밝은 황교안의 정수리에 물벼락이 쏟아져내리네
광주인민봉기는 《폭도들의 란동》 민심을 경악케 한 망발을 제친건 누구 희생자유가족은 《종북파과가 만든 괴물집단》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칼을 박은건 또 누구 그 망언자들의 피수 황교안이 물세례 받았네
민심을 기만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낯짝에 쉼판을 깔았대도 어느 정도지 5.18망언자에선 《정계》 아닌 《격려》로 기고돈 황교안 그 무슨 횡성수술 또 내뻗느냐
우산 펼쳐 물세례는 피할수 있다 해도 결코 정벌의 불소나기는 피하지 못하리니 광주는 분노한다 남녘의 민심은 절규한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황교안은 감옥으로!

《9.19군사합의 폐기》 《북의 도발분봉》 미군이 아닌 북을 설득》 대결망발 또한 세인을 아연케 하거니
독설만을 내뱉는 특기만 장기인가 권력욕에 환장한 못사내들과 《국회》의 복도에 벌렁 드러누워 망동과 란동의 주역으로 나선 라경원 그 행악질 또한 만사람의 경악 자아내누나
작발은 했다네 《자한당》의 나으러들 장한듯이 삭발하고 떠들어대네 《비폭력저항》을 떠벌어대네
머리털처럼 많고많은 죄악 검고검은 악행의 흔적 감춰보려 삭발했는가 없애보려 삭발했는가 죄악으로 수복한 머리털 백백 짝
사실은 가슴에 더이상 피눈물은 아픔과 상실의 바다만이 아니다 천벌받아 마땅할 회세의 반역무리들 검푸른 바다에 수장해버릴 오, 피의 갈기 추켜든 분노의 열물이다
서울에서 떠나 부산, 광주 대진, 대구로 돌아치며 《자한당》 떨거지들 비리악행이네 《안보》, 《민생》 떠들며 《좌파심판》 할 때까지 《대장정》을 한다네
민사람의 조소와 란대 모르는척 행각을 계속한다네 민심을 낚아보려 목더지게 부르짖어도 등돌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할뿐

천벌을 받으리라!

김승림
생때같은 애어린 자식들 잃어 5년세월 다 마르지 않은 피눈물 그것이 너희들 눈엔 물처럼 보이느냐 통절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한당》—인간추물들아
《시체장사군》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어제는 그 망언으로 모독하더니 오늘은 《그만 우러먹으라》고 《자식팔아 생계를 쟁겼다》고
모른다, 너희도 어머니가 낳은 자식
라경원
분수도 창피도 모르고 기가 뻗쳐 악담을 해대고있다
김태룡
라경원
분수도 창피도 모르고 기가 뻗쳐 악담을 해대고있다

삭발

리송일
가관이다. 삭발하고 놀아대는 꼴 《국민의 리익》 지켜싸운다네 삭발한다 달라지랴 삭발한다 속으랴 흉물스런 《자유한국당》 그 본색
이보소, 《자한당》의 나리들 삭발한 그 불꽃 더 멀리받기 전에 차리리 이 세상 하직하는게 좋으리 머리털 말끔히 밀어버린 너희들 남녘의 민심이 땅에서 말끔히 밀어내리라
이보소, 《자한당》의 나리들 삭발한 그 불꽃 더 멀리받기 전에 차리리 이 세상 하직하는게 좋으리 머리털 말끔히 밀어버린 너희들 남녘의 민심이 땅에서 말끔히 밀어내리라

사기행각의 끝은 어딘가

김영일
열적은 객기가 《정의》로 될수 없고 교묘한 사기와 간지러운 구걸로는 민심을 얻지 못하는 법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백수집단 차레지는것은 환멸과 중요이거니
망신될차를 타고 분주히 다녀봐라 그 행각의 거리가 늘어갈수록 죽음의 길은 더 가까워진다 그 행각의 종착점은 역사의 무덤이다
서울에서 떠나 부산, 광주 대진, 대구로 돌아치며 《자한당》 떨거지들 비리악행이네 《안보》, 《민생》 떠들며 《좌파심판》 할 때까지 《대장정》을 한다네
민사람의 조소와 란대 모르는척 행각을 계속한다네 민심을 낚아보려 목더지게 부르짖어도 등돌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할뿐

악녀에게 하는 말

김태룡
라경원
분수도 창피도 모르고 기가 뻗쳐 악담을 해대고있다



몸은 21세기에 살지만 정신은 지난 세기 좌파독재시대만을 향수하는 시대착오적인 남조선판 《동끼호페》들이 몇대로 날치고있다. 마치 저들이 민생을 생각하고 구원하는 기사인체 행세를 하면서 거대한 풍자를 《괴상한 거인》으로 착각하고 돌진하는 동끼호페처럼 당국이고 초불민심이고 다치는대로 좌우우돌하는가 하면 정치적소장인 박근혜를 아직도 악녀를 구출해보겠다고 거짓 병명까지 지어내다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허술한 산골주막을 《성곽》으로 착각한 옛 소설의 주인공처럼 십수년간 서울광장에 벌려놓았던 《천막당사》를 다시 차리겠다고 아부제기도 치고 《우주지사》나 된듯 삭발식이라는 푸닥거리도 벌린다.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다고 열혈 끓은 히에나마냥 개고 《법안》들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치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다 못해 그 놀음도 지루했는지 죄풍들이까지 들고 짐승들도 낫트거울 10시간의 《육탄전쟁》으로 《동물국회》가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시위했다. 동끼호페는 17세기 에스빠냐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인류문명의 번진과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착오증을 해학적으로 까뻐하기 위해 내세운 소설의 풍자적주인공이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현대판 《동끼호페》들은

변화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의 독재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 조장인 군사좌파 독재자들도 무색해할 허무맹랑한 지랄을 부리고있다. 미치광이들의 독재부활망상은 케케묵은 《색갈론》을 투구로, 갑옷으로 밀쳐치고 《좌파청산》의 칼날을 무지하게 휘두르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국자의 임명권을 놓고 《야당무시》나 《좌파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위기》니 떠들며 하루 삼시 꼬박꼬박 밥을 찾아먹는 5시간 30분짜리 《이어받기단식》 놀음을 벌

다.》, 《좌파, 빨갱이들에게 세뇌를 당했다》고 매몰의 망발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무리들이다. 거울이 없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기에 남조선민심에게 악녀의 종말이라는 교훈의 거울을 주었지만 부정부패와 좌파독재, 사대매국의 오물들이 다사다각 달라붙은 총적한 제 불꽃은 보러 하지 않고 남을 힐끗고 잡아먹을 구리만 하고있으니 참으로 인민주주의 패당이랴 해야 할것이다. 동끼호페는 양떼를 100만

은 마른 미역라레처럼 되살아나 《도적당》, 《차떼기당》의 후예들답게 군부독재를 반대하여 1987년 6월연민항쟁의 용사들이 들었던 《독재라도, 호헌철폐》의 구호까지 도적질하여 《독재라도, 헌법수호》를 제쳐내고있다. 보수패당이 떠드는 《좌파독재지지》, 《헌법수호》란 초불투쟁의 성과와 전취물을 전복하고 보수세력집권, 좌파독재부활을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다. 《유신》과 군부독재가 뿌려놓은 씨앗에서 움트고 자란 적폐무리들의 독재적본성

《북배후설》의 진상

에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들은 자기에 킨것도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것이 분명하며 기업을 토하고있다. 열도당도없는 억지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북의 인터넷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언급한후 청와대제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글이 울랐다. 청원자수가 1초에 30여명씩이나 늘어난것이 우연한것이겠는가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북의 언론매체가 《자한당》 해체를 언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속처리안건지까지 《북배후설》과 연계시키던 여야당이 다 북의 지령을 따른다는것인가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급제명도 있는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갈길은 오직 해체되어 없어지는 길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해체! 이것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여 시대착오적인 망언, 망동으로 남조선사회와 민족대부를 어지럽히는 보수패당에 대한 준엄한 선고이다. 정종문

현대판 《동끼호페》들의 추태

대군으로 착각하고 마구 무질렀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현대판 《기사》는 초불민심에 정면승부를 겨루겠다고 발악을 한다. 아침까마귀나 저녁까마귀나 까옥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로 악녀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라》, 《빨갱이를 죽이라》, 《빨갱이를 죽이라》고 고야대며 초불민심을 《용정》해야 한다고 광기를 부리다 못해 《다이나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레로 광고, 《내란선동》을 해대는가 하면 미운 벌레 장판에 모기듯 남조선전역을 계바라다니며 《피의 복수》를 부르치고있다. 초불대화에 밀려 시대의 음지에 쫓기고있던 때를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자 물먹

은 죽어도 고치지 못하는 유전적, 체질적, 병적인 집착증이 분명하다. 자갈밭으로 굴러가는 늪아 빠진 달구지소리같은 《색갈론》을 시도 때도없이 불어대기가 지겹지도 않은가. 한사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군사좌파독재시절로, 무당의 주술에 걸려 남조선사회를 엉망으로 만든 악녀의 독재시기에 되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필사적인 발악을 보며 역시 독재는 보수패당의 고향이고 그대로 무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만의 무리들, 동족을 모욕하면 《애국자》라 치켜세우고 외세를 규탄

려 민심으로부터 《몸까지단식》, 《단식이 아니라 밥투정》, 《삼척동자도 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조소를 받았다. 산불이 나면 《빨갱이정부》, 《산불정부》의 탓이기 때문이고 당국자를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몰아대는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 《탄핵을 해야 한다》, 《신적폐》, 《경제부능》과 같은 비린청을 돌리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5.18광주인민봉기를 《폭동》, 《5.18유공자들은 괴물집단》, 봉기를 집안한 퍼뜨린원은 《영웅》이라고 떠벌인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세월》호유가족들에게는 《징글징글하